

월요광장

몸으로 돌아오라



문요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얼마 전 한 단체에서 '차유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지 열심히 걷는 것이 아니라 걷기를 통해 몸을 자각하고 몸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간에 '아픈 몸과 대화하기' 순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프거나 불편한 몸의 부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몸의 부위를 의인화시켜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자신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들어 보는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불편한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몸과 대화를 해?' '몸이 무슨 말을 해?'

당연합니다. 이런 접근은 너무 낯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몸을 인격체는커녕 대화의 상대로 접해 본 적이 없

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시간이 끝나면 가장 많은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그날은 첫 소감을 발표하는 사람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픈 허리를 떠올렸어요. 그랬더니 무거운 등집을 진 허리 굽은 할머니가 연상되었어요. 그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깐 대화를 내는 거예요. '왜 힘들다고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느냐고 막 원망과 울분을 쏟아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허리가 아픈데 나는 짜증부터 냈어요. '바빠 죽겠는데 왜 또 말쟁이야!' '좀 잡자고 있어. 나중에 봐 줄 테니까!'라고 말했죠. 정말 허리에게 미안했어요. 오늘은 끝나는 대로 병원부터 가 봐야겠어요."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기본은 몸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렇다면 몸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 식품을 잘 챙겨 먹는 것일까요? 운동을 자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몸을 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몸을 수단화 해 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해 왔습니까? 우리는 해결되지 못한 스트레스를 몸에다가 풀었습니다. 몸이 고

통스러울 정도로 술이나 음식을 자주 집어넣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몸에 자해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외적인 가치감을 위해 몸에게 고통을 강요해 왔습니다. 발이 힘든 하이힐을 신고, 생리가 끊어질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 몸의 손상을 줄 정도로 운동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잠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몸을 채찍질해 왔습니다. 농경 시대에 가족도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습니 다. 일을 시키면 쉬게 하고 제대 음식을 주고 아픈면 돌봐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몸을 마음의 도구로 삼아 마음껏 착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몸이 그 자체로 욕구, 노김, 연어, 지혜 등을 갖출 개 별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 습니다. 우리는 몸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쉽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거나 내 마음 갈지 않아 상처받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 다. 그러나 힘든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곁에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면 우리는 보다 잘 헤쳐 갈 수 있습니다. 그 동반자는 가족과 친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요? 결국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탄생부터 죽음까지 나와 함께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입니다. 가장 나다운 것은 내 몸입니다. 내 몸엔 내 삶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내 몸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가족 관계가 불행하면 삶이 불행한 것처럼 평생 동반자인 내 몸과 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요한 마음, 행복한 관계, 훌륭한 삶 그리고 아름다운 영혼은 그 모든 게 자신의 몸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몸을 초월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몸에 뿌리를 두어야 지속 가능 한 일입니다.

몸을 배제한 삶은 뿌리 없는 식물과도 같아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없으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몸의 자각이 정신적 자각 앞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의 진짜 위기는 어쩌면 마음이 아니라 몸인지 모릅니다. 몸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몸의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법조칼럼

'광주형 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정훈  
변호사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형 일자리'의 진행 과정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당초 광주시(윤정현 전 시장)가 추진했던 것은 광주시의 21세기 미래 산업으로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조이롱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생산 관련 MOU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청정차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요 산업 기반으로 성장시키려고 했으나,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계획이 허황되거나 현실 가능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조이롱자동차에 공식적으로 협상 무산을 통보했다).

그 후 광주시는 애초의 계획을 많이 수정해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계획처럼 노사정 협력 형태로 자동차 산업을 부흥하려 했던 사례를 참고하여 현대자동차와의 광주형 일자리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각종 우려점이 있었고, 현대자동차와 최초 합의 발표를 앞두고 근로 조건(초임 연봉 3000만 원, 5년간 단체 협약 유예, 차량 연간 생산 대수 보장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노조측과 충분한 협의 없이 밀실 합의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최근에는 여당과 정부의 예산안 협조 및 적극 지지 발언,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적극 찬성 발언에 힘입어 협상 타결을 선언하다가 현대자동차측에서 노조의 전권 위임을 받은 광주시의 진정성을 의심하여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 노조와 현대자동차 양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노조 입장은 5년간 단체 협약 유예를 하는 것은 노동 관련법 위반으로서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며, 현대자동차측 입장은 광주시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고 근로 조건이 매년마다 변경될 경우 소형 SUV 차량의 안정적인 생산 및 사업 안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말 노조의 입장과 현대자동차의 입장이 타협점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먼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근로 조건에 대한 내용이 매년 급격히 변경될 것이 우려된다면 사업 초기 5년간은 물가상승률의 범위 내에서 임금 상승을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정 간 또는 제3의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임금 상승을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룬다면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하나씩 합의를 차분히 이루어간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의 진행 과정에서 사업 운영에 대한 노사정 간의 대립 및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삼성전자가 직원들의 백혈병 발병에 대한 보상을 공인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해결하였듯이 명망 있는 인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명칭의 재고도 요청된다. 명칭 자체에서 광주에 대한 엄청난 특혜가 전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라 이를 바꾸기 힘들지만, 부제도 자동차 산업 부활 프로젝트 또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 기지 등을 붙여 첫 번째 시행 도시가 광주인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칭 광주와 울산, 현대차 기준 공장지의 지역 갈등 구도도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광주형 일자리(자동차 산업 부활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합의돼 시작되길 바라며, 향후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이 또한 광주시정 및 광주시민들이 성숙해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기고

이 겨울에 다시 80년 5월을 생각한다



이지현  
5·18부상자동지회 초대 회장. 시인·연극인

대한민국의 양식 있는 국민들은 광주에 빛을 쬐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광주 학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투쟁을 했다. 그러다 육고를 치른 사람, 고문에 숨진 사람, 분신을 한 열사 등 수많은 분들이 역사의 제단에 바쳐졌다. 박종철, 이한열, 김근태 전 장관 등이 희생당한 가운데 38년을 보내고 있지만 역사의 시계는 고장난 지 오래다.

그러나 80년 5월, 그날의 슬픔과 희열을 목격했던 분수대 앞 시계는 멈춰서 버렸다. 건너편에는 '구 전남도청 원형 보존'이라고 쓰여진 현수막이 을씨년스럽게 나뭇가지에 걸려 있다. 2017년 5·18 기념식장에서 '구 전남도청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으나 진전이 없다. 5·18 진상 조사위원회가 출범했으나 한국당의 무책입에 의해 서석대의 고드름처럼 공중 얼어붙었다. 그러나 진상 규명마저 요원한 이 겨울이 더욱 추울 수밖에...

30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자. 여소야대가 형성되어 1988년 5공 청문회가 열렸

다. 죽은 사람은 많은데 총을 쏘라고 지시한 사람은 없었다.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울화통이 터진 한 의원은 전두환을 향해 명패를 던졌으며, 헬기왕성한 미 남 의원은 살인마라고 고함을 질렀다. 명패를 던진 의원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고함을 지른 광주의 젊은 의원은 뇌리에서 사라졌다.

정상용.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82년. 내란 음모로 사형 선고와 선고받았다가 그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특사로 풀려난 환경 행사에서였다. 그 후 정 동지는 끊임없이 활동을 하면서 5·18 민중항쟁 동지회를 창립했다. 남자였지만 질투가 날 정도로 잘 생긴 당신이 13대 국회의 원 선거를 앞두고 만나지는 연락이 왔다. 국회에 진출해서 5·18 진상 규명 투쟁을 할 테니 도와달라는... 정동년 김상운 선배님 등이 출마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니 당신이 5월의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5월 단체에 이르면 전 얘기가 떠돌았으나, 민주후보 추천위원회라는 형식을 통해 광주의 민주후보로 선정되었고, 마침내 전두환 비서실장을 지낸 이영일 의원을 이기고 당선되어 여의도에 진출했다. 그러나 광주의 의원으로서만 만족할 수 없어 김덕룡이라는 거물과 겨루겠다고 지역구를 서울로 옮겼다. 비록 실패했지만 투사다운 기질로 도전하는 정치인으로 가슴에 남아 있었다. 가끔 지인들을 통해서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소식이 들리곤 했다.

세월이 덧없이 흐른 지난 10일, 광주 시 산하 환경관리공단 청문회장. 신화적인 인물인 5공 청문회 때와 반대로 후배들에게 곤욕을 치렀던다. 어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라 어쩔 수 없었지만, 80년 5월을 밝힌 훌륭한 선배님께 혹독하게 대하지 않았나 고통스러웠다고 고백을 했다. 광주 시의원들은 정상용 후보를 존경을 하면서도 준비 소홀 등으로 아쉬워했으며, 반대를 하더니 시장에게 상처를 줄 것 같고, 통과를 시키자니 내키지 않은 상황이라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당신의 미흡함이 드러난 상황에서 망가진 자존심을 불태우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필자도 5월의 한 사람으로서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당사자인 정상용 동지는 그 얼마나 긴긴 겨울 밤을 번뇌 했을까?

하지만 역시 정상용이었다. 시장과 시의원들과 시민들께 부담을 주지 않으려 13일 자진 사퇴라는 결단을 택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학내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제적을 당한 후 재수를 하여 명문고에 합격한 정상용. 80년 5월 학생 지도부가 예비 검열로 구속되거나 피신을 할 때 5월 26일 결성한 민주투쟁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은 군법회의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으로서 27일 민주주의의 새벽을 지킨 정상용. 후배들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도록 김중배 동지와 함께 책임을 뒤집어 쓴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의리의 사나이.

그러나 정치권을 떠난 후 애환을 안고 살았을 당신을 우리는 이해해주지 못했다. 애중이라고 할까, 솔직히 5월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지 못한 정 동지를 원망도 하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어떤 정관 후보들처럼 버티지 않고 5월의 지도자답게 용의를 한 것만으로도 다시 옛날처럼 보듬어주고 존경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의협심 강한 당신이었기에 80년 5월 27일 쓰러진 영령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광주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였으리라. 정 후보가 5월 항쟁 지도부로서의 위상을 보여 주지 못하고 의원 출신 답지는 못했더라도, 이번 일로 인해 그동안의 영정과 공로가 폄하되지 않았으면 한다. 전화위복의 계기 삼아 광주와 소통하며 무등산의 소나무처럼 힘차게 뿌리내리길 바란다.

선거 과정에서 시장을 도운 분들은 백의중군보다는 반대 급부를 원할 것이다. 그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당신의 능력과 자질을 망각하고 과욕을 부리면 시장에 부담을 주며 시의회의와 시민들의 눈총을 면치 못하리라. 정상용 동지의 사퇴를 교훈 삼아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분들이 산하기관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배치되어 광주의 희망기를 불렀으면 한다. 5월 가족과 시민단체, 광주시민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광주의 미래를 위해 나눔과 배려와 소통의 주먹밥 공동체로 2019년을 디자인했으면 한다.

社說

민간공원 사업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를

광주시의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영터리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 공고부터 불공정했던 데다 기밀 자료인 평가 점수표가 사전에 유출됐고 평가 자체도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잇그제 발표한 2단계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모집 공고를 하면서 토지 가격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지가' 방법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제안사별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같은 공원의 토지 가격이 제안사별로 제각각이었고 가격을 높게 산정한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도 공원 시설비를 부적절하게 산정했고, 일부 제안사가 토지 가격의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정평가가 아닌 학술용역으로 했는 데도 인정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업체 평가나 감정 사항도 반영하지 않았는가 하면 평가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선정 결과 공고 전에 평가 점수표가 유출된 것은 담당 공무원이 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관계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재평가를 실시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정 순위가 바뀌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는 2020년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는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처럼 많은 비위가 드러난 것은 공무원의 '실수'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장 1단계 선정 과정에도 같은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가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법 행위 관련자들에게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폐업 속출하는 농업법인 이대로 괜찮은가

전남 도내 농업법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폐업률이 절반 가까이 육박할 정도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전남 지역에서 설립된 농업법인 1668개 가운데 763개(45%)가 폐업했다. 이처럼 폐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설립과 폐업 과정이 까다롭지 않아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농업법인은 농산물 관련 공장 설치를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은 뒤 부도가 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고의 부도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농어촌 지역 곳곳에 농업법인들이 공장 등을 짓다 부도가 난 이후 수년째 방치되면서 흉물어 된 시설물도 많다. 실제 장흥 지역에서는 모 농협회사법인이 수십억 원을 투자해 농산물 가공공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던 농지를 파헤쳐 놓았는데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해당 농업회사법인은 지난 2013년부터

장흥군 소재 농지에 농산물 가공(재배)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했으나, 자금난 등이 이유로 사업 중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도 최근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이 농업법인은 토지 비용이 1억여 원에 불과한 곳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짓겠다고 모 금융기관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과 1억 원 안팎의 토지에 수십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이나, 돈이 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경매로 내놓은 것은 대출 은행과 농업법인 간 연관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해당 공장의 인허가 과정부터 은행 대출 부실 여부 등을 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공장 인허가에 앞서 해당 농업법인이 자금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피지 못한 장흥군의 책임도 따져 봐야 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농업법인의 설립과 폐업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농업법인 제도에 대한 손질도 있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중국 전국 시대에 '왕손가' (王孫家)라는 사람이 살았다. 제나라의 민왕은 열두 살 때 부친을 여의고 노모를 모시고 살아 가는 그를 불쌍히 여겨 열다섯 살 때 관직을 주었다.

BC 284년에 연(燕)나라가 제나라의 도성을 급습하자 민왕은 황급히 피신했다. 왕손가도 민왕을 수행했지만 위나라에서 서로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몰래 집으로 돌아왔다. 노모가 귀가하는 왕손가를 보고 물었다. "대왕 마마는 어디 계시느냐?" 왕손가가

답했다. "위나라까지 수행했지만 대왕 마마께서 한밤중에 몸을 피하

하고 민왕의 종적을 찾아나섰다. 하지만 민왕은 이미 초(楚)나라의 장군 요치에게 살해당한 뒤였다. 왕손가는 사람들을 모아 요치를 죽였다. 중국 전한시대 유방이 전국 시대 전략가들의 책략을 모아 기록한 '전국책' (戰國策)에 실린 '의문이망' (衛門而望)의 유래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자신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고사성어를 내세웠다. 박 전 대법관은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판사에게 이고사를 언급하며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는 판사님께

달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61세의 박 전 대법관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문앞에 기대선' 어머니를 뵈 수 없게 됐다. 어머니와 아들이 반갑게 손을 맞잡는 정경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심경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일 터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은 왕손가가 민왕을 찾지 않은 것처럼, 자신이 섬겨야 할 국민을 저버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앞에 기대선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 <b>신경 배달 안내</b>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원 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건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